

도내 직업계고 학생 해외 취업 협력

전북자치도교육청, 호주 시드니서 글로벌 인턴십 간담회 한인회장 등 참여... 현지 취업시 안정적 적응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글로벌 인턴십을 진행 중인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50명은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4주 동안(1기)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 기계가공, 전기전자, IT·미디어콘텐츠, 원예조경, 말사육 분야의 직무교육을 이수 중이다.

간담회에는 오혜영 시드니 한인회장, 김동우 상공인회회소 부회장, 이창석 호남 향우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인턴십에 대한 호주인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향후 글로벌 인턴십 참여 학생들의 현지 취업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시드니 레스토랑에서 근무하

는 박수성(덕암정보고)씨와 시드니 무역유통회사에 일하는 오택진(출포자동차고)씨는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현지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로, 인턴십 경험과 해외취업 사례를 공유했다.

박수성씨는 2016년에, 오택진씨는 2011년에 글로벌 인턴십에 참여했다.

박씨는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힘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후배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을 크게 갖고, 이뤄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글로벌 인턴십을 운영, 올해는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해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 1기와 2기로 나눠 총 98명이 참여한다.

8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2기는 조리·제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글로벌 인턴십을 진행 중인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빵 17명, 헤어·피부·네일 10명, 서비·사무·회계 7명, 용접 4명, 조적·미장·타일 2명, 애견미용 4명, 자동차 정비 3명 등 총 47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강 정의인재교육과장은 "글로벌 인

턴십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직무능력과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중등교사 대상 학습코칭 역량강화 직무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14일, 24일 등 4일에 걸쳐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중등교사 44명을 대상으로 '학습코칭 역량강화 직무연수(심화과정)'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습코칭이란 교사가 학생의 학습유형을 이해하고 공부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진단한 후, 동기 부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전략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향상을 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수는 △학습 동기 부여 △학습유형 진단 △학습전략 안내 △학습관리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도형심리를 적용한 학습유형 검사와 학습유형별 활동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는 어떤 유형의 교사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자기주도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은 의욕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더라도 지속하기가 힘들고, 학습효과도 나타나기 어렵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의 학습코칭 전문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9월 1일자 총 456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교사의 승진과 전직, 전보, 정년퇴직, 명예퇴직, 신규임용 등 456명에 대해 이뤄졌다.

먼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운봉초등학교 박영수 교장,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창의인재교육과 이강 과장,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위도중학교 겸 위도고등학교 김수안 교장을 각각 발령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에는 청하초등학교 오선화 교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에는 군산내흥초등학교 김운범 교장, 창의인재교육과장에는 전주술내고등학교 문형심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이와 함께 직속기관장에 대한 교체도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미래교육과 민완성 과장, 전북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인사를 발탁·중용하는데 주요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박영수 '남원 교육장', 이강 '무주 교육장', 김수안 '부안 교육장', 오선화 '미래교육과장'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 민완성 '교육연구원장', 장기선 '학습해안수련원장'

희망의 대전환을 통해 지난 2년간 전북교육이 추진해 온 정책을 뿌리내리고, 전북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인사를 발탁·중용하는데 주요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한편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은 23일 오전 9시30분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후기 외국인 유학생 10명에 학위 수여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9일 플라자홀에서 2024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베트남에서 유학 온 학생 1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오영 편 동(글로벌산업기술과) 학생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학과 교수님들과 학교 선배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 학교생활이 즐겁고 행복했다"며 "앞으로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희천 총장은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당당히 사회에 첫걸음을 시작한 유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졸업 후에도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사업기술과 송유진 학과장은 "이번에 졸업하는 유학생 모두 전북 지역에 취업 및 정착을 희망하고 있다"며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전공 역량 및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영선고, 전주대와 인공지능분야 인재양성 '맞손'

내년부터 AI 특성화고로 전환

영선고등학교(교장 정순량)가 내년부터 AI 특화 특성화고(가칭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로 전환된다. 이에 대비해 영선고는 전주대와 인공지능분야 인재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선고와 전주대 인공지능학과는 8일 인공지능 분야 교육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교육 및 연구활동에 교수 요원 지원 및 연구 정보 제공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진로·진학 전공 체험 및 컨설팅 △우수학생 지원 및 협력 △기관 보유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제공 등이다.

앞서 전주대는 전국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 7개 중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



영선고와 전주대 인공지능학과는 지난 8일 인공지능 분야 교육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 그동안 직업계고 인공지능(기초·심화·고급)연수, 정보·컴퓨터 부전공 연수 등 전북교육청과 관련 분야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순량 교장은 "전주대의 교육시설 및 인적자원을 공유해 전북 지역의 인

공지능 분야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며 "향후 교육과정 고도화와 졸업 후 성장경로를 다양화 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특화 특성화고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한글햇살서비스' 12월까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디지털 문해교육을 통해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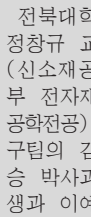
특별자치도교육청 및 14개 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 저소득층, 비문해 성인학습자,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장비 및 교재 등을 구비해

지역으로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교육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기본 기능 설정과 활용 △VR, 닌텐도를 사용하여 생활체육 교육 등 디지털 기초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이만호 기자

심해 바다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전기적인 현상 분석 연구 '호평'

전북대 김현승·이예빈 대학원생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최우수'



김현승

이예빈

전북대학교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 연구팀의 김현승 박사과정생과 이예빈 석사과정생이 최근 부산 벡

스코에서 열린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학계학술대회에서 심해 바다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전기적인 현상을 분석한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원생은 프랑스의 CNRS 연구소에서 넘겨받은 해양생물체인 관벌레(또는 튜브웜) 샘플을 표백해 특정 성분의 키틴만 남겨 둔 내부의 특이한 구조를 관찰했다.

이에 따르면 김현승 박사과정생은 키틴에 존재하는 전하와 내부에 페이스트리처럼 비어있는 구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면서 특정한 전기적인 특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예빈 석사과정생은 혁신융합대학 에너지신산업 사업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연구 경험을 쌓아왔다.

이들을 지도한 정창규 교수는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우

리대학 교육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뜻깊은 연구 결과와 교육성과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관벌레(Tube Worm): 심해 열수구 주변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의 일종으로, 키틴 성분의 하단 관(몸통) 위에 붉은색 깃털 같은 아가미가 붙어있는 외양을 가졌다.

*키틴(Chitin): 자연계에서 셀룰로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고분자이며, 갑각류의 껍데기나 곤충의 외골격 등의 주성분.

'대한민국 인재상 도전하세요'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 1일까지 후보자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1일까지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50명, 대학생·청년일반인 50명 등 총 100명으로 이 중, 도내 고등학생 지역 추천 인원은 6명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심사 시 특정 고교 유형(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자율고, 과학영재학교, 국제학교, 외국인학

교)이 지역별 추천 인원의 50% 미만 이 되도록 제한했으며, 중앙심사 시에도 특정 고교유형 선발자 수를 총 선발 인원의 20%(최대 10명)로 상한을 뒀다.

희망자는 대한민국인재상 접수포털(<https://injeaward.saramin.co.kr>)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추천서는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참고해 반드시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우편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 1인에게는 국무총리상(상금 300만원)을, 99인에게는 교육부장관상(상금 2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JST 공유대학'이 지난 9일 융합전공 선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JST 공유대학 융합전공' 오리엔테이션 개최

내달 2일 개강하는 과정 이수·수강신청·LMS 이용 등 안내

'JST 공유대학'이 지난 9일 융합전공 선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운영을 주관하는 R5대학교육혁신본부 이교우 본부장과 이지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 이일재 미래수송기기사업단장, 장민석 에너지신산업사업단장, 최준호 농생명·바이오사업단장, 그리고 선발학생이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은 9월 2일 개강하는 JST 공유대학 융합전공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방법을 비롯해 수강신청 안내, 학사관리시스템(LMS) 이용 방법, 지원금 혜택,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JST 공유대학은 도내 대학과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에 특화된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가상대학이다. 미래 수송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 3개 학부가 각각 3개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이교우 본부장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 "JST 공유대학 교육과정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